

세계 4위의 경제대국 프랑스와 동유럽 EU진출국가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 마지막 편으로 프랑스와 동유럽의 IT현황을 준비하였다.
 프랑스는 세계4위의 경제강국으로 유럽국가 중 GDP규모 1위를 지키고 있고,
 동유럽국가들은 EU진출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정보통신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진출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자.



서유럽의 경제대국 프랑스

유럽시장에서 프랑스의 GDP규모는 독일을 능가하는 1위로 서유럽 전체 GDP의 약 17%정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다.

IT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프랑스의 서비스분야는 서유럽에서 19.8%, 소프트웨어산업은 16.7%, 하드웨어산업은 15.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프트웨어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랑스의 IT관련기관으로는 주파수 할당 및 관리를 담당하는 AFN(National Frequency Agency)과 통신규제기관 ART(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가 있다. ART는 통신서비스분야의 자유화와 통신경쟁을 선도하며 외국계 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통신규제위원회(ART: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에 따르면 2002년 4분기 프랑스 전체 통신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3%가 증가한 89억5천만유로이다. 이러한 증가는 모바일시장의 성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7.7%가 증가하여 31억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시장 전체의 1/3에 달하는 규모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부가가치 서비스분야는 메시징서비스, 디렉토리서비스, 콜센터, 음성자동인식, 자동번역 및 사설망 등이

다. 최근의 부가가치 서비스는 IP/VPNs, VOIP 그리고 웹호스팅 분야로 넘어가고 있고 SMS서비스도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GPRS와 같은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증가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무선사업자들은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이 한창이다. 또 MVPNs, contents, m-commerce, WLANs 등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선랜(WLAN)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DVD플레이어와 휴대용 CD플레이어, 캠코더, TV비디오 겸용제품, TFT-LCD 평면모니터 등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로의 진출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사무소나 연락사무소 또는 판매사무소 등을 통한 임시적 방법과 지점 설립이나 법인으로 인정해주는 자회사를 설립해 진출하는 안정적인 방법이 있다. 프랑스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외국기업에게 특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새로 설립된 기업들의 지역본부나 물류센터에 대해 2년간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해외거주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파견근무자들에게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 주는 특별보상금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진출 시 참고해야 한다.

전자디지털화와 지식 인프라 구축

헝가리

헝가리는 주변 동구권 국가들보다 빠른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장경 제구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2년의 GDP규모는 598억달러로 1인당 GDP는 약 6000달러까지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장구조의 전환을 이루어온 것이다.

2003년 헝가리의 IT시장 규모는 17억8천만달러로 매년 평균 8.9%씩 성장하였으며 2007년까지는 10.33%의 복합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돼 시장규모는 25억25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통신정책은 'eHungary 2004-2006'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경제·문화·사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사회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콘텐츠와 서비스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005년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치는 전년 대비 10.6% 성장한 5억3899만유로, 유선데이터 서비스시장은 6억 5900만유로로 전년 대비 24.5%의 성장이 접처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이동통신단말기, 자동차 등 6억6100만달러를 수출했으며, 육류, 컴퓨터 주변기기, 음향장치 등 8700만달러를 수입했다.

정부의 통신정책에 발맞춰 기존 수출품인 소프트웨어, 유무선 통신, 유선데이터 서비스 등 정보통신분야 개척에 호기를 맞고 있다.

전자정부시스템 추진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IT시장 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2억2000만달러이다. 2007년에는 3억6000만달러로 예상돼 2007년까지 11.4%의 복합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2년 현재 하드웨어산업이 약 1억4000만달러에 달해 점유율 60%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산업은 각각 23%,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2005년까지 전자정부시스템에 기반한 2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EU와 약속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유럽 모든 국가의 전자정부시스템이 전체 유럽서버와 연동될 예정이다. 전자 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불가리아 정부는 한국을 모델로한 벤치

마킹이 한창이다.

2005년 이후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그 규모는 1억6천 만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통신망 현대화를 위해 1993년부터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영사업자는 2010년까지 통신망의 75%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 컴퓨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수입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가전·기계제품을 주로 수출하던 국내기업에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우리나라는 가전제품, 기계제품 등 7370만달러를 수출했으며, 가성소다, 화학원료 등 1410만달러를 수입했다.

IT 아웃소싱 지역으로 각광

체코

2003년 체코의 IT시장 규모는 24억3000달러로 매년 8.3%씩 증가해 EU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2007년에는 33억7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정부는 1999년 5월 IT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정보화 사회구현과 정보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전망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은 2005년 6억5100만유로로 전년 대비 13.3%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임산업은 2001년 9300만달러에서 2002년 1억7000만달러로 급증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2003년 3월부터 ADSL이 보급되면서 체코의 인터넷환경이 급속히 개선되어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는 최근 3년 동안 무선전화 이용자가 70%대에 육박하고 인터넷 호스트수가 급증하고 있는 등 IT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동전화 및 인터넷의 성장이 유선전화의 성장세보다 훨씬 빨라 통신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환되고 있다.

또 체코는 기존 IT 아웃소싱 선두국가인 인도를 제치고 아웃소싱 국가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제조업뿐 아니라 IT 아웃소싱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통신기기, 컴퓨터 본체와 주변 기기, 인터넷 장비와 솔루션 등이 수출 유망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료협조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